

#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 :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강주현 숙명여자대학교

---

##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를 남성 유권자와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정치 정향에 관한 분석 결과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은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성 유권자는 이념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은 남성 유권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성차 현상을 보였다. 지방선거 당시 쟁점이 된 정치, 경제, 여성, 교육 이슈를 분석한 결과 다른 이슈와는 달리 여성 이슈인 미투 운동에서만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차별된 태도를 보였다.

주제어 : 여성, 선거, 지방선거, 성차, 이슈

## I. 서론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는 선거 전 과거 지방선거보다 투표 참여율이 낮을 것<sup>1)</sup>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60.2% 투표율을 나타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선거를 성별에 따른 투표율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61.2%, 남성 유권자의 59.9%가 투표에 참여해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남성 유권자의 투표율보다 높았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의 경우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57.2%로 동률을 보인 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상승해 남성 유권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유권자의 관심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선거 참여가 남성 유권자보다 높은 것은 과거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 유권자보다 낮았던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놀라운 변화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거에서 시도지사과 같은 광역단체장 중 여성 당선자는 전혀 없었으며, 기초단체장 중 여성 당선자는 총 8명으로 전체 226명의 당선자 중 3.54%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둔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며 정치는 여성과 관련이 없는 남성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에게 유권자로서 참정권이 부여되었지만, 서구 국가들의 여성 참정권 획득 과정과는 달리 우리나라 여성의 참정권은 유권자로서 여성의 적극적인 요구나 시위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해방 후 한국전쟁

---

1) 당시 제7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 배경은 일반적으로 대선이나 총선과 비교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낮으며, 시기적으로 당시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진 여당에 유리한 선거였기 때문이었다.

과 분단을 겪으며 여성에게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기회가 남성에게 비해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제도적으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지만, 유권자로서 여성이 체감하는 정치는 여전히 자신과 거리가 있는 영역이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비해 정치참여는 물론 정치 관심, 정치 지식, 정치 효능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남성 유권자보다 더 보수적 성향을 보인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이에 따른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변화가 일어났다. 높은 교육 수준과 다양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유권자는 과거와는 달리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영역에 참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여성 대표성과 정치 세력화는 빠른 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은 그야말로 놀랄만한 성장을 보였다. 제1회 지방선거가 시작된 1995년부터 제3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2002년까지 기초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2% 이하였다. 그러나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 여성 할당이 의무화되면서 기초의원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이 15.1%로 급증했고 이후 기초의원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20%를 넘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 역시 상승세를 유지하여 15대 국회까지 평균 3% 이하의 여성의원 비율이 최근 20대 총선에서는 17%로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렇게 여성의원 비율의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여성 대표성과 정치 영역에서 성차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에 대한 국제순위 118위이며, 2018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 8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2호 (2020)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sup>2)</sup>는 108위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교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의 정치 대표성은 낮으며 정치 영역에서 성차는 높은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쟁점 이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과연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행태가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볼 때 전통적 성차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중 대부분의 연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여성 유권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지방선거에 관한 기존 연구 경향은 여성 유권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두기 보다는 여성 후보자의 당선에 미치는 요인, 여성의원의 입법 활동, 여성 대표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등과 같이 여성 대표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선이나 총선이 아닌 최근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여성의원이나 정치인과 같은 여성 지도자 아닌 일반 유권자로서 여성을 대상으로 정치 정향을 남성과 비교 분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한 다양한 정치, 경제, 여성, 교육 이슈를 평가하는데 유권자의 성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7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를 연구하게 된 연구 배경, 연구 목적,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서술한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여성 유권자에 관한 기존 연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과 유럽

---

2) 성 격차 지수(GGI)는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으로 지표를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경제 참여와 기회 지표와 정치적 권한의 지표가 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 같은 서구 국가에서 이루어진 여성 유권자에 관한 주요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정치적 행태에 관련된 기존 연구 경향과 핵심 내용을 알아보았다.

3장은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추출된 연구 가설,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에 대한 측정과 변수처리, 분석 자료의 출처, 어떤 통계 분석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한 연구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4장은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에 대한 분석은 먼저 기초 통계 분석이 시도되었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하고자 순차적 로짓 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 기법이 사용되었다. 마지막 5장은 결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며 마무리 지었다.

## II. 여성 유권자에 관한 연구

유권자의 정치행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여성 유권자는 오랫동안 중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여성 유권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주된 이유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는 정치참여 기회가 제도적으로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 역사가 뿌리 깊은 국가에서조차 여성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서고 난 이후였다. 가부장적인 이슬람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15년 전까지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었다.

이처럼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여성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에게 정치는 남성에 비해 다소 익숙하지 않고 거리가 느껴지는 영역이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유권자로서 참정권이 주어졌지만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은 남성 유

권자에 비해 낮았다.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 유권자보다 낮은 것은 개발도상 국가는 물론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서구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사이의 전통적 성차가 가장 먼저 사라진 미국에서조차 1980년대까지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투표 참여율이 낮은 현상을 보였다.<sup>3)</sup>(Baxter and Lansing 1983; Beckwith 1986; Firebaugh and Chen 1995)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투표에 참여가 낮다는 것 외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정치 태도를 분석한 연구의 공통점은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정치에 관한 관심이 낮고 정치 지식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었다(Campbell et al., 1960; Lipset 1960; Almond and Verba 1963; Inglehart 1977). 또한,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비교했을 때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며, 혹여 여성 유권자가 정치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정치를 공적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는 자신의 아버지나 남편의 정치적 견해나 결정을 따른다고 보았다(Berelson et al 1954; Greenstein 1965).

이러한 현상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남성 유권자와 대비되는 여성 유권자의 수동적 정치 정향과 행동을 이른바 ‘전통적 성차’(traditional gender gap)라고 한다.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정치 관심, 정치 지식, 정치적 행동에 있어 남성 유권자보다 소극적이며 수동적이라는 것이 여성과 남성의 성별의 차이를 명명하는 전통적 성차의 핵심이다.

과거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으며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여성이 남성에 비교해 공적인 영역에 무신경하며 편협한 사고를 하고 이성적이지 않으며 감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했다. 다시 말해 전

---

3) 최근 미국에서 여성의 선출직 진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교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에 출마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Darcy, Welch and Clark 1994; Witt, Paget, and Mathews 1994).

통적 성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유권자로서 여성이 걸어온 역사적 맥락이나 여성 유권자가 처한 구조적이며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나 이해보다는 여성 개인의 성향이나 속성으로 치부하는 것이었다(Almond and Verba, 1963). 물론 이러한 여성 유권자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과 속설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Campbell 2006; Norris 2002).

발전 이론(developmental theory)에 따르면 남녀 간의 전통적 성차가 발생한 원인은 전통사회에서 오랫동안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 남성은 밖에 나가 노동을 통해 가정경제의 재원을 마련하며 집안을 이끄는 역할을 했으며, 여성은 주로 집 안에 머물며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담당했다. 발전 이론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관점보다는 성별에 따른 노동의 분화라는 구조적인 맥락에서 설명한다(Inglehart and Norris 2000). 인류가 오랫동안 전통사회 구조를 이어오면서 성별에 따른 구분된 역할이 여성과 남성에게 사회화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고착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구분된 역할과 영역이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무너졌다. 특히 고등 교육의 기회가 여성에게 확대되고 여성이 남성과 함께 사회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가속되었다.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거 여성과 남성의 고정된 성 역할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던 인식의 틀이 바뀌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 변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 문화를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여성과 남성의 구분된 역할이 이제 더 이상 고정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유권자로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의 변화는 고학력 여성의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활동 참여와 관련이 깊다. 다시 말해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행태의 변화는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과 노동 영역의 확대에 따른 여

성이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의존에서 벗어난 결과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1980년대 이전까지 보였던 패턴과는 달리 서구 국가의 여성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관심, 정치에 대한 효능감, 정치참여에서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사라졌다. 부연하자면 1980년대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과 남성 유권자의 투표율 차이가 사라졌으며, 1990년대에는 프랑스, 독일, 북유럽 국가들에서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 유권자의 투표율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현상이 발생했다(Lovenduski et al. 2004).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권 국가에서도 오랫동안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사이에 전통적 성차가 나타났듯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초기 우리나라에서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나 정치참여에 관해 연구한 논문의 경향은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정치 관심이나 정치 효능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 역시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배성동 외 1975).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정치 관심이나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전통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국가의 근대화 이루는 시기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과 사회 참여와 같은 근대화의 수혜를 더 많이 누렸기 때문으로 본다(이남영 1985)

전통적 성차를 보였던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행태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 시점은 1990년대부터이다. 1990년대 대선과 총선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여전히 선거에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선거 관심도에 있어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의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김현희 1999).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기에 수행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선거, 정당, 정책에 대한 정치 인식 및 태도에 있어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으며 오히려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정치 관련 인물과 정당에 대



한 배타성이 낮고 성차별, 성 역할과 같은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남성 유권자보다 높게 나타났다(백영옥 1992; 이승희 1993).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권투표<sup>4)</sup>(feminist vote)의 개념이다. 여권투표는 여성의 권리와 관련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투표를 결정하는 것이다(Klein 1984; 조기숙 2002). 여권투표와 관련이 있는 이슈들은 남녀평등, 고용 평등, 성차별, 낙태, 보육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에 대해 여권투표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여성주의적 태도를 여성단체 및 여성운동에 대한 지지, 여성의 자율성에 대한 부정,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사회화 수용 정도와 같은 변수를 활용해 여성 후보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김현희·오유석 2003). 분석 결과 여성주의 태도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여성 유권자가 여성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가 여성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속설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여성 정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김원홍 2003; 김은경 2002). 이와 주제가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여성 후보자를 지지할 뿐 아니라 남성 유권자에 비해 여성 후보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오유석 2000; 김현희·오유석, 2003).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면 현실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의 현실 정치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음을 반영하고 있다(김현희 2001).

18대 대선은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후보가 여성 후보이었기에 여성 대표성, 보육, 출산, 육아휴직, 여성 일자리, 여성 비정규직 문제 등 과거 대선에 비교해 볼 때 다양한

4) 여권투표와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 바로 여성투표(women's vote)이다. 여성투표란 성의 구분으로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의 투표선택을 의미한다.

## 14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2호 (2020)

여성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 유권자의 관점에서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여성 후보인 박근혜 후보보다 양성 평등적 시각과 여성 대표성에 대해 여성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공약이 많았으나, 당시 선거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핵심 이슈로 주목받지 못했다(하영애 2014).

성 역할 인식과 정치행태 간의 분석을 수행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성 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여성 후보의 지지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성평등 의식과 여성 후보 지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2002)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는 능력 있는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데 있어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선출직과 같은 공직에는 여성 후보보다는 남성 후보가 더 적합하다는 이중 잣대가 작동했기 때문이다(김원홍 2003). 우리나라 유권자가 실제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녀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은 동의하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선택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교해 최근 우리나라의 선거를 살펴보면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서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전통적 성차가 줄어들었거나 일부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서구 국가들에 비교해 이러한 경향이 일관적이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7년, 2012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집적 자료를 분석한 모형에서는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성차가 유의미한 변수로 마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와 정책 선호 변수를 모형에 추가했을 때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성차 변수의 영향력이 사라졌다(이우진 2014).

정치 관심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선거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전통적 성차를 보이고 있다(김원홍, 김은경 2010; 이소영 2013). 우리나라 14대-16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정치에 관한 관

심과 정치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에 대한 평가나 정치 쟁점에 대한 평가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긍정적이며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진 2004).

정치 효능감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낮은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가 다수이다(배성동 외 1974; 김형준 2014).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정치 효능감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송경재 2016).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이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차이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참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진입하면서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의 투표율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 2002년과 2012년 대선에서는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 유권자의 투표율보다 더 높게 나왔으며, 2002년 대선의 경우 선거에 관심이 있고 투표에 참여하는 능동적 참여형의 비중이 남성 유권자보다 여성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준 2014).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일관적인 것은 아니었다. 동일 연구에서 2007년 대선의 경우 능동적 참여형으로 분류되는 여성 유권자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가 2012년 대선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접근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는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이 달랐다. 남성 유권자는 개인의 이익에 따른 투표 성향을 보인 반면 여성 유권자의 경우에는 공동체 이익이 클수록 투표에 적극적이었다(송경재 2016). 정치참여 유형에서도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투표와 같은 관습적인 참여에서는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시위, 집회, 촛불시위와 같은 비관습적인 참여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송경재 2015).

### Ⅲ. 연구 가설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다른 정치적 정향을 보이는가 여부이다. 만약 여성 유권자가 정치 정향에 있어 남성 유권자와 다른 정치 정향을 보인다면 그 차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지방선거 당시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남성 유권자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유권자의 성별이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의 견해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았다.

사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이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논쟁적이다. 앞서 기존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과거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은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전통적 성차 현상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정치에 관한 관심과 지식이 낮을 뿐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이 낮으며 보수적인 정향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속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과 사회활동 참여도 함께 증가하였다. 높아진 여성의 교육 수준과 이에 따른 여성의 노동 참여는 기존의 우리나라 여성이 유권자로서 정치에 대해 가지는 소극적이며 보수적인 정향을 변화시켰다. 특히 공식적인 정치 참여인 투표의 경우에 최근 선거에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과 남성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그 차이가 사라졌다.

과거와 비교해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및 취업 기회가 확장되었으며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관심, 정치 관련 지식, 정치에 대한 효능감, 정치적 이념 성향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

된 서구권 국가들처럼 전통적 성차가 완전히 사라졌는지는 불확실하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정치 관심, 지식, 효능감이 여전히 낮으며 정치적 이념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으나, 이러한 경향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의 경우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이지만, 정치 효능감과 정치 이념의 경우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 정향에 있어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있느냐 여부가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민주적인 정치문화에 노출되어 온 서구 국가의 여성 유권자와는 달리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정치 관심, 지식, 효능감, 이념과 같은 정치 정향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 *가설1: 한국 여성 유권자는 정치 정향에서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바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주목받은 이슈에 대한 여성 유권자의 평가이다. 당시 지방선거 시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관련 문제, 경제 이슈로는 최저임금 상향 문제, 여성 이슈로는 미투 운동, 교육 문제로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존속 문제가 화제가 되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이슈 중 어떤 이슈가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의 입장의 차이를 가져오느냐이다. 여성 유권자들 관련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여성 유권자는 여성의 권리와 관련 있는 문제에 관심으로 두고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권리와 직결되는 이슈는 남녀평등, 고용 평등, 성차별, 성폭력, 성희롱, 보육 등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

출이 확대되면서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또한,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는 여성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정치, 경제, 교육과 같은 공적인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의견 차이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물론 개별 유권자 차원에서 각 이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여성 유권자라는 집단의 개념으로 볼 때 북한 관련 문제, 최저임금 인상이나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폐지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견해가 남성 유권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권리와 직결되는 성차별, 성폭행과 같은 문제 특히 미투 운동은 미국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여배우들의 성추문 폭로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파급된 운동으로 우리나라 역시 미투 운동의 행렬이 정치, 사회, 문화계를 휩쓸며 중요한 사회 이슈로 주목받았다. 따라서 미투 운동과 같은 여성 이슈에 대해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는 차별된 견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2: 한국 여성 유권자는 다양한 이슈 평가 중 여성 이슈에서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다양한 이슈 평가에 있어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자료의 출처는 한국정치학회, 한국정당학회, 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정치의식조사>이다. 분석 방법은 먼저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가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 통계 분석이 시도되었다. 기초 통계 분석 이후 유권자의 성별이 유권자의 정치 정향 및 이슈 평가에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순차적 로짓 분석<sup>5)</sup>이 사용되었다.

5)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정치 정향과 이슈에 대한 평가 모두 연속 변수가 아니며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치 정향의 수준과 이슈에 대한 평가의

본 연구는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의 차이를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기에 연구의 종속 변수는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이슈에 대한 평가이다. 유권자의 정치 정향은 정치 관심, 정치 지식, 정치 효능감, 정치 이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 관심은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관심 정도로 정치에 관한 관심이 매우 많다 (1)부터 전혀 없다 (4)까지로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치 지식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의 총수, 지방선거 당시 국무총리 이름, 광역단체장의 연임 가능 횟수에 대한 정답을 합산하여 모두 오답인 경우(0)부터 모두 정답인 경우(4)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정치 이념은 유권자 자신이 진보와 보수의 이념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응답한 것으로 가장 진보가 0이며 가장 보수가 10으로 측정되었다. 정치 효능감은 정치 효능감에 관한 다음의 7가지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① 정치인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② 나 같은 사람에게는 투표만이 정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③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다 ④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하고 평가할 수 없다 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정치나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다 ⑥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했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⑦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지느냐가 미래의 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각 문항은 매우 공감한다 (1)부터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로 측정되었으며, 각 문항을 합산한 정치 효능감 변수는 정치 효능감이 매우 낮음(7)부터 매우 높음(28)으로 측정되었다.

지방선거 당시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된 이슈에 대한 평가는 정치 이슈로는 북한에 의한 대규모 전쟁 가능성과 북한 지원에 대한 문제, 경제 이슈로는 최저임금 상향 조정 문제, 여성 이슈로는 미투 운동 지속 문제, 교육 이슈로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문

제였다. 북한에 의한 전쟁 관련 문제는 지방선거 당시 기준으로 북한에 의한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1)부터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로 측정되었다. 북한 지원 관련 문제는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 (1)부터 매우 반대한다 (4)로 측정되었다.

경제 이슈로 최저임금 상향 조정 문제는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매우 찬성한다 (1)부터 매우 반대한다 (4)까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여성 이슈로 미투 운동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매우 찬성한다 (1)부터 매우 반대한다 (4)는 입장까지 측정된다. 교육 문제로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폐지 문제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매우 찬성(1)부터 매우 반대(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된 관심을 두는 중요 독립 변수는 유권자의 성별이다. 유권자의 성별은 남자 유권자는 1, 여성 유권자는 2로 처리했다. 유권자의 성별 이외에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유권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지방선거 당시 TV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 시청 여부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 등이 순차적 로짓 분석 모형에 통제 변수로 포함되었다. 각 변수가 어떻게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측정 방식에 관한 내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변수처리

변수	변수처리
성별	1. 남자 2. 여자
연령	1. 만 19-29세--> 5. 만 60세 이상
학력	1. 초등학교 졸업--> 6. 대학원 재학/졸업
소득	1.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1. 1,000만원 이상
정치 이념	0. 매우 진보-->10. 매우 보수



정치 효능감	7개의 정치 효능감 합산 점수 7.매우 낮음---> 28.매우 높음
정치 지식	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정수, 국무총리, 광역단체장 연임 제한 횟수에 대한 정답 합산 점수 0. 모두 오답-->4. 모두 정답
정치 관심	1. 매우 많다--> 4. 전혀 없다
북한 전쟁	북한에 의한 대규모 전쟁 가능성 1.매우 높음 -->4. 전혀 아님
북한 지원	북한 적극적 지원 1.매우 찬성-->4. 매우 반대
미투 운동	미투 운동 지속 1. 매우 찬성-->4. 매우 반대
최저임금	최저 임금 상향 조정 1.매우 찬성-->4. 매우 반대
외고/자사고	외고, 자사고 폐지 1.매우 찬성-->4. 매우 반대
TV 후보자 토론회/연설	1. 보았음, 2 보지 못했음
여성공천 할당제	1. 적극 찬성-->4. 적극 반대

#### IV. 2018년 지방선거 성차 분석

##### 1. 정치 정향 분석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정치 관심, 정치 지식, 정치 효능감, 정치 이념과 같은 정치 정향에서 남성 유권자와 차별된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 통계 분석을 했다. 정치 정향에 관한 기초 통계 분석 결과 <표 2>를 살펴보면 정치에 관한 관심과 정치에 관한 지식에서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관한 관심은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여성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관련된 지식 역시 정치 관심과 유사 패턴이 나타나 여성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지식 정도가 남성 유권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과는 달리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이념은 남성 유권자와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2018년 지방

선거에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과거에 보였던 이념적 보수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념적 성향에 있어 남성 유권자와 성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은 정치 이념과 마찬가지로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오랫동안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이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낮다는 연구가 다수였으며, 최근 정치 효능감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오히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은 남성 유권자와의 성차가 없었다.

기초 통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성차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 효능감과 정치 이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전통적 성차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선거 당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과거처럼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정치 효능감이 낮지 않았으며 이념적으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지도 않았다.

<표 2> 정치 정향 성차

	남성	여성
정치 관심	2.46	2.80***
정치 지식	2.91	2.58***
정치 효능감	15.819	15.579
정치 이념	5.23	5.18
t-test two-tailed, ***p<0.001, **p<0.05, *p<0.1		

과연 유권자의 성별이 유권자의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에 영향을 준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유권자의 성별과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해 순차적 로짓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 3>을 살펴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가 유권자의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관심에 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정치적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외에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지식 정도, 유권자가 느끼는 정치 효능감, 유권자의 연령대, 유권자가 지방선거 시기 TV 후보자 토론회 및 방송 연설을 시청했느냐 여부였다.

기초 통계 분석 결과에서 예상했듯이 유권자의 정치 관심 정도와 유권자의 정치 지식수준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예상대로 정치 지식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정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효능감도 정치 관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정치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나이와 정치적 관심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권자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매체와 정치적 관심 역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및 방송 연설을 본 유권자가 정치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지식에서도 정치 관심과 마찬가지로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성차가 존재했다.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정치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지방선거 당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들이 남성 유권자들과 비교해 정치에 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여성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은 것은 예상된 결과이다.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의 축적은 그 분야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표 3>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에 대한 분석

	정치 관심	정치 지식
<b>성별</b>	0.981*** (0.141)	-0.555*** (0.133)
연령	-0.277*** (0.058)	0.153*** (0.055)
학력	-0.088 (0.082)	0.048 (0.077)
소득	0.046 (0.043)	0.104** (0.040)
정치지식	-0.206*** (0.072)	
정치 효능감	0.088*** (0.029)	-0.016 (0.026)
정치 관심		-0.258*** (0.093)
TV 후보자 토론회/연설	0.044** (0.019)	-0.079*** (0.018)
log likelihood	-862.347	-1112.557
Pseudo R square	0.063	0.033
N	864	864

유권자의 정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권자의 성별 이외에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관심 정도, 유권자의 연령대, 유권자의 소득수준, 유권자가 지방선거 당시 TV 후보자 토론회/연설을 보았는지 같은 다양한 요인이었다. 예상대로 정치에 관심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정치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시기 TV로 후보자 토론회 및 연설을 시청한 유권자가 후보자 토론회 및 연설을 보지 않은 유권자에 비해 정치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관심이나 미디어의 효과와 더불어 유권자의 연령대와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 사회적 요인이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지식수준에 영

향을 미쳤다.

유권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젊은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에 비해 정치적 지식은 높다는 것이다. 연령대에 따른 정치에 관한 관심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젊은 유권자는 나이 든 유권자에 비교해 볼 때 정치에 관한 관심은 낮지만, 정치에 관한 지식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의 경우 젊은 유권자와는 반대로 정치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정치 지식수준은 젊은 유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권자의 연령대에서 보이는 정치에 관한 관심과 정치에 관한 지식수준이 대조적이다. 유권자의 수입 역시 정치 지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권자의 수입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이슈 평가 분석

2018년 지방선거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세간에 시선을 끌었던 이슈 중 하나는 6.12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맞물려 북한 관련 문제였다. 또한, 당시 지방선거 시기 미국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여배우들의 연이은 성추문 폭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미투 운동의 사회적 파장이 컸던 시기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당시 주요 이슈로 떠오른 북한 관련 이슈로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과 북한 지원 문제, 여성 이슈로 미투 운동 문제, 경제 이슈로는 최저임금 상향 문제, 교육 분야에서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폐지 관련 문제에 대한 유권자 의견을 알아보았다.

먼저 기초 통계 분석 결과 중 여성 유권자와 관련 있는 여성 이슈인 미투 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미투 운동에 대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우리나라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

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의 지속에 대한 강한 동의를 표시하는 여성 유권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투 운동에 대한 여성 유권자의 호응과 지지를 알 수 있다.

<표 4> 이슈 평가 성차

<b>미투운동 지속</b>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남성	17.7%	51.8%	28.8%	1.6%
여성	22.6%	55.8%	21.2%	0.4%
pearson chi2=13.138, p=0.004				
<b>북한지원 적극 확대</b>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남성	6.9%	41.9%	34.9%	16.3%
여성	4.2%	37.7%	42.9%	15.3%
pearson chi2=8.678, p=0.034				
<b>북한에 의한 대규모 전쟁 가능성 높음</b>	매우 공감	대체로 공감	별로 공감 않음	전혀 공감 않음
남성	8.5%	39.1%	43.3%	9.1%
여성	8.7%	35.9%	50.4%	5.0%
pearson chi2=9.391, p=0.025				
<b>최저임금 상향 조정</b>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남성	16.1%	48.8%	30.4%	4.6%
여성	13.3%	51.8%	30.0%	5.0%
pearson chi2=1.887, p=0.596				
<b>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폐지</b>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남성	11.5%	59.3%	25.4%	3.8%
여성	10.1%	57.7%	27.4%	4.8%
pearson chi2=1.412, p=0.703				

북한 관련 이슈 중 하나인 북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느냐 여

부에 대해 여성 유권자의 42.9%가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남성 유권자의 경우 지방선거 당시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41.9%가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견해차가 나타났다. 지방선거 당시 북한에 의한 대규모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크게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대규모 전쟁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있어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의 입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성차가 존재하는지는 더욱 엄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선거 당시 우리 사회의 경제 이슈로는 최저임금 상향에 대한 문제가 주목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사이의 의견 차이가 기초통계 분석 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존 최저임금 보다 높여야 한다는 찬성 견해가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모두에서 반수를 훌쩍 넘는 다수로 나타났다.

교육 문제로서 대학 진학과 직결되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폐지 여부에 대한 문제도 최저임금 상향 여부 문제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폐지에 있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견해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당시 우리나라 유권자는 성별과 상관없이 유권자의 다수인 60% 이상이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폐지하는 데 찬성을 표명했다.

기초 통계 분석을 통해 드러난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와의 입장의 차이가 과연 유권자의 성별이 이슈에 대한 평가 차이를 조성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순차적 로짓 분석 방법을 시도했다. 순차적 로짓 방법을 통해 성차의 영향력을 분석할 이슈는 미투 운동 지속 여부 문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문제, 북한에 의한 대규모 전쟁 가능성에 대한 문제였다.

<표 5> 미투 운동과 북한 관련 이슈 분석

	미투 운동	북한 지원	북한 전쟁
성별	-0.424*** (0.131)	0.102 (0.126)	-0.124 (0.128)
연령	0.036 (0.054)	-0.091* (0.052)	0.032 (0.053)
학력	0.024 (0.077)	-0.179** (0.074)	-0.065 (0.075)
소득	-0.097** (0.039)	-0.006 (0.038)	0.086** (0.039)
정치 이념	0.079*** (0.028)	0.170*** (0.028)	-0.159*** (0.027)
정치 지식	0.012 (0.065)	-0.214*** (0.064)	0.039 (0.064)
정치 관심	0.068 (0.091)	-0.079 (0.089)	0.331*** (0.091)
여성공천 할당제	0.383*** (0.071)		
log likelihood	-1015.709	-1152.534	-1095.405
Pseudo R square	0.032	0.027	0.022
N	1000	1000	1000

유권자의 성별과 각 이슈에 대한 평가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종속 변수로 설정된 미투 운동 지속 여부,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 중 유권자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여부가 영향을 준 것은 오직 미투 운동의 지속 여부 문제였다. 북한 관련 이슈인



북한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북한에 의한 대규모 전쟁 가능성은 유권자의 성별과 함께 북한 관련 이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분석 모형에 고려되자 유권자의 성별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017년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확산을 가져왔으며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미투 운동이 지속하여야 하느냐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볼 때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유권자의 성별이 미투 운동 지속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미투 운동은 유권자로서 여성이 직접 체감하는 이슈이자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가 남성 유권자와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유권자의 성별 이외에 미투 운동 지속에 영향을 준 요인은 유권자의 소득수준과 정치적 이념 같은 인구 사회적 요인과 여성공천 할당제에 대한 견해였다. 유권자의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을 지속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유권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투 운동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일정 수준까지 할당으로 공천하는 것을 찬성하는 유권자일수록 미투 운동의 지속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기초 통계 분석 결과와는 달리 순차적 로짓 분석 결과에서는 유권자의 성별이 향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느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권자의 성별이 아닌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 정치 지식수준, 학력 수준, 연령대였다.

유권자의 이념과 북한에 대한 지원은 유권자의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향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유권자의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북한에 대한 향후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유권자의 교육 수준과 정치 지식수준은 북한의 지원 문제에 있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정치 지식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태도를 밝혔으며, 유권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역시 북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찬성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아니지만, 유권자의 연령대가 북한 지원 확대에 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이 흥미롭다.<sup>6)</sup> 분석 결과 유권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향후 우리 정부의 북한 지원에 대한 확대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권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북한 지원에 대한 확대에 찬성하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젊은 세대가 북한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세대별 여론조사 결과에서 따르면 나이 든 세대의 경우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이 높았지만, 젊은 세대 특히 유권자 중 가장 젊은 세대인 20대의 경우 우리나라가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보다는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는 견해가 다수로 나타났다<sup>7)</sup>(이현우 외 2016). 젊은 세대의 유권자일수록 나이 든 세대와는 달리 조건 없는 남북통일을 보다는 현재 체제의 유지를 선호했듯이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 확대 역시 반대하는 것이다.

북한에 의한 대규모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의견에서도 역시 북한에 대한 향후 지원 확대에 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성별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 운동 지속 여부와는 달리 북한에 의한 대규모 전쟁 가능성과 북한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유권자의 성별이 북한 관련 문제에 의견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성의 권리와 직결되는 미투 운동과는 달리 북한 관련 문제는 유권자의 판단에 성별이 관련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의한 한반도의 대규모 전쟁 가능성에 영향을 준 요소는 유권자의 성별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 정치 관심 정도, 소득수준

- 
- 6) 젊은 유권자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어 북한에 대한 지원 확대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북한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7)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특히 20대 유권자가 남북통일보다는 현재 분단된 체제를 더 지지하는 주된 원인은 경제적 이유이다. 다시 말해 남북이 통일되는데 드는 막대한 통일 비용과 통일 이후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될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젊은 세대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이다.

이었다. 먼저 유권자의 정치 이념은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북한에 의한 대규모의 전쟁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유권자일수록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다.

유권자의 정치 관심 역시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에 관한 관심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북한에 의한 대규모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크게 보았다. 이것은 2017년부터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증폭되는 분위기를 다룬 뉴스, 신문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부연하자면 정치에 관심이 높은 유권자가 당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 관한 미디어 영향을 받아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소득이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유권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방선거 당시 시점에서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낮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아니지만, 북한 관련 이슈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확대와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의견에 모두 영향을 준 요인은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이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미투 운동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여러 이슈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를 남성 유권자와 비교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부연하자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관심, 정치 효능감, 정치 지식, 정치 이념과 같은 정치 정향에서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전통적 성

차를 보이는지와 지방선거에 쟁점이 된 다양한 이슈 중 여성 이슈에 대해서 남성 유권자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정치 정향에 있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와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기초 통계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에 있어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성차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정치 효능감과 정치 이념에서는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과는 달리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성차가 사라졌다.

과거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이념적으로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볼 때 보수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이념은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치 효능감 역시 과거 연구들 대부분은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정치적 효능감이 낮다는 연구가 주류였으며 최근에는 여성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이 남성 유권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논쟁적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은 남성 유권자와 차이가 없었다.

기초 통계 분석 결과 남녀 간의 성차가 나타난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에 관해 더 정확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유권자의 성별과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함께 심층적인 통계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의 성별이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관심은 물론 정치에 관한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기초 통계 분석에서 보인 결과와 동일하게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관심은 남성 유권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치 관심에 있어 전통적 성차가 존재했다.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지식을 분석한 결과 역시 정치 관심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여성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지식수준이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볼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치 지식 측면에 있어 전통적 성차 현상을 보였다. 여성 유권자의 정치에 관한 관심뿐 아니라 정치 지식수준에서도 전통적 성차가 발견된 것은 두 요소가 서로 상호관련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에서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더불어 관심을 둔 부분은 지방선거 당시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이다. 지방선거 당시 우리 사회에 주목을 끈 이슈는 정치 이슈로서 북한 관련 문제, 여성 이슈로는 미투 운동, 경제 이슈로는 최저임금 상향 문제, 교육 이슈로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폐지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방선거 시기 전 북미간 긴장 상태가 가속화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가 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시기와 맞물려 북한 관련 문제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미국의 거물 영화 제작자의 성 추문에 대해 여배우의 연쇄적인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던 시기였다.

정치, 경제, 여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평가에 있어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차별되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 통계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미투 운동에 대해서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 간의 성차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미투 운동은 지속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이 남성 유권자에 비교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미투 운동에 대한 여성 유권자의 호응이 높았다.

지방선거 당시 북한에 의해 한반도에 대규모 전쟁 가능성 여부와 향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기초 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견해 차이가 있었다. 북한 관련 문제와 미투 운동과는 달리 최저임금 상향 문제와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 성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과연 유권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가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해 유권자의 성별과 더불어 북한 관련 이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을 포함하여 심층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기초 통계 분석 결과와는 달리 북한에 의한 대규모 전쟁 가능성과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향후 지원 확대 여부에 있어 유권자

의 성별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다시 말해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과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는 유권자가 여성이나 혹은 남성이나 여부는 관련이 없었다.

북한 관련 이슈와 마찬가지로 미투 운동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에 유권자의 성별이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성별과 더불어 미투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 변수를 함께 고려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권자의 성별이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을 지속해야만 하는지에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방선거 당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지속하여야 한다는데 지지를 표명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관심과 정치 지식에서는 전통적 성차가 존재했으며, 정치 효능감과 정치 이념은 전통적 성차를 벗어난 모습을 보였기에 이 두 개의 현상이 공존하는 일종의 과도기 현상이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서구 국가들의 여성 유권자도 이런 시기를 거쳐 전통적 성차를 탈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과도기는 향후 전통적 성차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으로 판단된다.

지방선거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다양한 이슈들이 논쟁이 되었으나, 유권자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여부가 인과적 영향을 미친 이슈는 오직 미투 운동 문제였다. 유권자의 성별이 미투 운동에 대한 의견에 파급력 있는 영향을 준 원인은 미투 운동이 가지는 이슈 자체의 속성과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시기에서 찾을 수 있다. 미투 운동은 유권자로서 여성이 체감하는 여성 권리에 관한 문제이며, 지방선거 시기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의 여파로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다.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이 과도기 현상을 보이는 것과 더불어 본 연구의 또 다른 발견은 여성 유권자가 우리 사회를 살면서 남성과 다르게 느끼고 경험한 문제 특히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서

는 남성 유권자와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슈가 바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미투 운동 이슈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과 같이 유권자이자 여성으로서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이 이슈화된다면 언제든지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는 다른 입장에서 그들만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지방선거를 분석한 것이 아닌 제7회 지방선거에 한해서 여성 유권자의 정치 정향과 이슈 평가를 분석했다는 점과 당시 지방선거에서 미투 운동과 같은 여성 이슈에 있어 여성 유권자와 남성 유권자의 견해 차이가 존재했지만, 전반적인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 4월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유권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적 정향과 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 김민정·강경희·강윤희·김경미·박채복·엄태석·유진숙·전복희·조현옥·최정원.  
2011. 『젠더 정치학』 서울: 한울.
- 김정숙·김민정. 2016. “여성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OUGHTOPIA』 31권 2호, 197-222.
- 김원홍. 2003. “한국여성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14  
권, 37-70.
- 김원홍·김은경. 2010.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 2002. “16대 총선을 통해 본 남녀 유권자의 여성 후보 선택 요인.”  
『페미니즘 연구』 2호, 243-277.
- 김현희. 1999. “대안 정치세력으로서의 여성, 그 가능성 연구: 1990년대  
여성의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42호, 306-336.
- . 2001. “대안 정치세력으로서의 여성: 21세기 한국여성의 투표행  
태 전환 가능성 연구.” 『경제와 사회』 52호, 227-251.
- 김현희·오유석. 2003. “여성은 여성에게 투표하지 않는가?: 16대 총선결  
과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7호, 231-260.
- 김형준. 2014. “여성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투표 행태 추이에 대한 고찰: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86권 1호, 71-101.
- 배성동, 길영환, 김종림. 1975. “한국인이 정치참여와 그 특성.” 제1회 재북미  
한국인 정치학자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 백영옥. 1992 “여성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여성과 정치』 한국여  
성정치문화연구소.
- 송경재. 2015. “사회적 자본과 여성의 정치참여: 저신뢰와 세대, 이념적  
분극화.” 『한국정치연구』 24집 2호, 1-24.
- . 2016.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성 정치의식와 투표참여 그리고 효능감: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5권 2호, 119-148.
- 오유석. 2000. “4.13 총선과 여성 유권자의 정치행태.” 『동향과 전망』 45호, 71-91.
- 이남영. 1985. “산업화와 정치문화: 민주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1974년과  
1984년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19권, 77-95.
- 이소영. 2013. “2012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투표행태.” 『한



- 국정치학회보』 47권 5호, 255-276.
- 이승희. 1993.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형태의 성차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6권 3호, 195-230.
- 이우진. 2014. “성과 세대의 정치경제.” 『재정학 연구』 7권 4호, 1-40.
-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 남봉우, 성홍식. 2016. 『표심의 역습: 빈부, 세대, 지역, 이념을 통해 새로 그리는 유권자 지도』 서울: 책담
- 조기숙. 2002. “한국 여성의 투표행태와 여성정책.” 『의정연구』 8권 1호, 198-226.
- 최영진. 2004. “성의 정치심리학: 한국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한국심리학회지』 9집 2호, 81-100.
- 하영애. 2014. “제18대 대통령선거 연구: 여성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2호, p.351-376.
- Almond, Gabriel,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Boston: Little, Brown.
- Baxter, Sandra, and Marjorie Lansing. 1983. *Women and Politics: The Visible Majori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eckwith, Karen. 1986. *American Wome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Impacts of Work, Generation, and Feminism*.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A Study of Opinion 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 Campbell, Rosie. 2006. *Gender and the Vote in Britain.: Beyond the Gender Gap?* Clochester, Essex: ECPR Press.
- Carroll, Susan J. 1988. “Women’s Autonomy and the Gender Gap: 1980 and 1982.” pp.236-57 in *The Politics of Gender Gap*, edited by Carol Muller.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 Clark, Cal, and Janet Clark. 1986. “Models of Gende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Women and Politics* 6:5-25.
- Darcy, R., Susan Welch, and Janet Clark. 1994. *Women, Elections,*

- and Represent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Firebaugh, Glenn, and Kevin Chen. 1995. "Vote Turnout of Nineteenth Amendment Women: The Enduring Effects of Discrimin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972-96.
- Greenstein, Fred. 1965. *Children and Politics*.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Kaufmann, Karen M. 2002. "Culture Wars, Secular Realignment, and the Gender Gap in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24:283-307.
- Klein E. 1984. *Gender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Martin. 1960. *Political Ma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ovenduski, Joni, Pippa Norris and Rosie Campbell. 2004. *Gende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London: Electoral Commission; available at [http://www.electoralcommission.org.uk/templates /search/document.cfm/9470](http://www.electoralcommission.org.uk/templates/search/document.cfm/9470).
- Manza, J. and C. Brooks. 1998. "The Gender Gap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When? Why? Im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5):1235-1266.
- Miller, Arthur, Anne Hildreth, and Grace L. Simmons. 1988. "The Mobilization of Gender Group Consciousness." pp.106-34 in *The Political Interests of Gender*, edited by Kathleen B. Jones and Anna G. Jonsadottir.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 Norris, Pippa. 2002. "Women's Power at the Ballot Box." In *Voter Turnout Since 1945: A Global Report*, edited by Rafael Lopez Pintor and Maria Gratschew. Stockholme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and Pippa Norris. 2000. "The Developmental Theory of the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1:441-463.

Witt, Linda, Karen M. Paget, and Glenna Mathews. 1994. *Running as a Women: Gender and Power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투고일 : 2020년 3월 15일 . 심사일 : 2020년 3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4월 3일

\* 강주현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당 호감도와 정치인 평가: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 국회의 실질적 대표성 증진의 조건:여성 관련 법안 사례” 등이 있다.

<Abstract>

## Gender Gap in Political Orientations and Issue Evaluations : The Case of the 7<sup>th</sup> Local Election

Joohyun Ka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gender gap in political orientations and issue evaluations. To examine main hypotheses, the survey data of the 7<sup>th</sup> local election in South Korea h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ordered logit regression. The results of political orientations are somewhat mixed. While the gender gap in political efficacy and ideology has disappeared, the traditional gender gap in political interest and knowledge still exists. Another finding is that there is only gender gap in the evaluation of gender-related issue like Me Too movement.

**Keywords** : gender, gender gap, election, local election, issue